

제12대 한국체육정책학회 차기 회장 입후보자 소견서

성명	박귀순	
소속	영산대학교	
직위	교수	

존경하는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제12대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에 입후보한 박귀순입니다.

먼저 저를 추천해 주신 선배 회원님과 후배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체육정책학회에서 다년간 상임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아시아체육정책학회에서는 국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체육사학회에서는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국제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여성체육학회에서는 부회장, 대한무도학회에서는 편집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학술 및 학회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 한국대학체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CM) 이사와 2023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한민국 대표팀 부단장으로 참가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우슈협회 이사로서 국내 대회에서는 부임장으로, 국제대회에서는 국가대표팀 부단장으로 참여하며 우수 스포츠 진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우슈연맹에서는 국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으로서 학회의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회 회원과 연구자 간의 소통과 협력,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연결**

본 학회는 1998년 ‘한국스포츠정치외교학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된 이후, 2002년에 ‘한국체육정책학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학회로서, 그동안 학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선배님들과 현재 회원님들 간의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전·후세대가 ‘**연결**’되는 체육 정책 학술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 **화합**

본 학회의 회원 구성을 살펴보면, 체육 정책을 순수하게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다양한 학문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사 및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혁신**

본 학회는 체육과 관련된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창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는 새로운 체육 정책의 ‘**혁신**’을 도모할 때라고 생각하며, 학술을 통해 ‘**혁신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부흥**

아시아체육정책학회는 2015년 한국체육정책학회 선배님들의 많은 노고 끝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입니다. 제가 국제이사로서 중국, 대만, 싱가포르, 한국 간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지만, 제1대 회장이셨던 故 임태성 교수님의 학회에 대한 선의(善意)를 이어받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부흥**’을 이루고자 합니다.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으로서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회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혁신을 존중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학회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학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